

오케스트라 악기와 함께 8

클라리넷(Clarinet)

글. 김성현 ubc 울산방송 미디어기술국 부장

연재 목차

- 1편. 바이올린
- 2편. 비올라
- 3편. 첼로
- 4편. 더블 베이스
- 5편. 하프
- 6편. 플루트
- 7편. 오보에
- 8편. 클라리넷**
- 9편. 바순
- 10편. 색소폰
- 11편. 리코더
- 12편. 트럼펫

이 글은 오케스트라를 구성하고 있는 악기를 매회 하나씩 소개한다. 악기 소개는 개요, 구조, 종류, 뒷이야기 등의 열개로 기술되며 방송 현업 하시는 분에게 악기에 대한 이해와 교양으로써 상식을 충전하게 될 것이다.



클라리넷Clarinet을 들어가며

로버트 레드포드, 메릴 스트립 주연의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가 1985년 개봉되었다. 이 영화는 기라성 같은 두 배우의 풋풋한 젊은 시절을 볼 수 있는데 이 둘의 아름다운 사랑과 함께 아프리카의 광활한 대자연과 야생동물들이 살아 숨 쉬는 정경이 압권이다. 특히 두 주인공이 노란 경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면서 펼쳐지는 아프리카의 아름다운 풍광에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A Major K.622 2악장’이 어우러져 마치 수려한 풍경화에 빠진 듯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이 곡은 클라리넷의 아름다운 음색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멋진 음악이다.

클라리넷의 개요

클라리넷은 흑단(에보니Ebony)으로 제작하는데 싱글리드Single Reed와 목재 재질에서 만들어지는 특유의 음색이 아름다운 악기이다. 목관의 부드럽고 따듯한 느낌과 금관의 화려하고 강한 음색의 양면을 겸비하고 있어서 어둡고 중후함에



아웃 오브 아프리카 / 영화 스틸컷

서 밝고 화려함까지 다양한 음색과 3옥타브를 넘나드는 넓

은 음폭을 가지고 있다. 17세기 후반 클라리넷의 전신인 싱글리드가 장착된 샬뤼모-Chalumeau라는 목관악기가 있는데, 이 악기는 독일의 악기 제작자였던 데너Denner에 의해서 개량되어 사용되다가 클라리넷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샬뤼모에 금속키를 붙여서 개량하였는데 이 악기의 음색이 트럼펫과 비슷하여 클라리넷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샬뤼모 / timetoast.com

클라리넷은 이탈리아의 옛 트럼펫이었던 클라리노-Clarino에서 따왔으며 밝고 깨끗하다는 라틴어 어원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의 클라리넷은 19세기 플루트 악기 제작자였던 테오발드 뵘-Teobald Boehm에 의해 고안된 프랑스식 클라리넷이 주류를 이루며 아직도 진화 중인, 오케스트라에서는 비교적 젊은 악기이다. 클라리넷 연주의 장점 중에서 아르페지오(기타나 하프처럼 화음을 하나하나씩 소리를 분리해서 연주하는 방식) 주법이 있는데, 멜로디를 포함하는 화음을 나누어서 연주하는 음들은 단조롭지 않으면서 아름답게 들린다. 합주에서는 멜로디와 멜로디 사이의 브리지-Bridge나 간주에 많이 사용된다. 다양한 목관악기 중에서 유일하게 클라리넷만이 할 수 있는 효과는 미끄러지듯 연주하는 글리산도이다. 조지 거쉰-George Gershwin의 랩소디 인 블루-Rhapsody in blue의 도입부에서 클라리넷이 낮은 음부터 높은 음까지 미끄러지듯 단번에 연주하는 부분이 유명하다.

조지 거쉰은 전문적인 음악교육을 받지는 못했지만 타고난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서 훌륭한 곡들을 많이 작곡하였다. 게다가 이런 이유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였으며 클래식에 재즈를 도입한 음악가였다. 대표적인 예로 'An American in Paris'에서는 클래식에는 쓰이지 않았던 색소폰과 택시 호른-taxi horn이라는 악기를 사용했다. 물론 재즈와 색소폰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그전까지는 오케스트라에 도입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 거쉰의 대표적인 곡으로는 Rhapsody in Blue, An American in Paris, Piano Concerto in F, Summertime 등이 있다.



조지 거쉰 / pbs.org



택시 호른 / calpercrental.com

클라리넷은 처음에는 저음과 고음을 정확하게 소리 내기가 쉽지 않아 많은 연습량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색소폰의 운지법과 발성법이 비슷하여 연주를 잘하게 되면 색소폰을 연주할 수 있게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반면에 텅잉에 익숙한 색소폰 주자는 클라리넷을 연주하려면 연습이 필요하다고 한다. 클라리넷은 저음에서 고음까지 안정적인 음을 내는 음역대가 넓은 악기로서 고역대는 화려하고 중음과 저음은 풍성하고 중후하며 고운 소리가 난다. 또한 목관악기 중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음량을 조절하며 트릴과 트레몰로에서도 자유롭다. 오케스트라에서는 제1클라리넷은 일반적으로 독주를 담당하며, 제2클라리넷은 제1클라리넷을 뒷받침해주며 소리의 빈공간을 채워준다.

이 악기는 클래식에서부터 재즈, 팝, 가요, 컨츄리, 요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음색이 강한 색소폰이 멜로디에 사용된다면 클라리넷은 중간 음의 역할로 악단의 음색을 화려하고 다채롭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이유

Back to the Bas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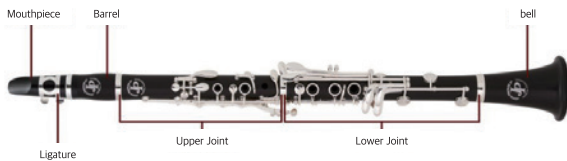
로 다양한 장르에서 활약하는데, 특히 재즈에서도 많이 사용하며 싱싱싱^{sing sing sing}으로 유명한 스윙 재즈^{Swing Jazz}의 거장 베니 굿맨^{Benny Goodman}은 클라리넷 주자로 재즈뿐만 아니라 클래식에서도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다. 그리고 스위스 요들 음악에도 등장하는데 음색이 곱고 밝아서 경쾌한 음악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 편이다.



Benny Goodman / legacy.com

클라리넷의 구조

클라리넷은 마우스피스^{Mouthpiece}, 배럴^{Barrel}, 윗관^{Upper body}, 아랫관^{Lower body}, 벨^{Bell} 이렇게 다섯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클라리넷의 구조 / johnpacker.co.uk



분해도 / made-in-china.com

마우스피스는 입에 물고 부는 부분인데 아랫입술에 리드가 닿고 윗입술과 윗니로 가볍게 마우스피스 윗부분을 문다. 이때 마우스피스 안에 장착된 리드에서 바람을 통과시키면

리드가 떨리면서 소리가 나게 된다. 특히 입속에 들어간 리드의 양과 아랫입술의 리드를 누르는 압력에 따라 음질과 음량이 달라진다. 이 소리가 나무의 몸통과 관을 통과하면서 증폭되어 클라리넷 고유의 음색을 내게 되며 벨은 끝이 삼각형 모양으로 퍼져 있는데 관을 통과한 음이 잘 확산하기 위해서이다. 마우스피스의 재질과 이것에 장착되는 리드의 재질(케인, 플라스틱)과 리가쥬어^{Ligature}(마우스피스와 리드를 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리개 장치)의 재질에 따라서 음색이 달라진다. 요즘은 케인으로 만든 리드의 관리상 불편함으로 인해 플라스틱 제품도 나오는데 음질은 조금 못하지만 사용상 편해서 초보자나 일부 연주자들이 사용하고 있다. 배럴은 짧은 막대형인데 마우스피스와 윗관을 연결하는 부분이며 조율에 사용한다.

클라리넷의 종류

클라리넷의 종류로는 크기에 따라서 E플랫조, B플랫조, A조, 알토, 바셋호른, 베이스 클라리넷 등이 있으며 운지법 체계가 동일하여 클라리넷 연주자는 모든 클라리넷을 연주할 수 있다.

E플랫조 클라리넷

피콜로 클라리넷이라고 부른다. B플랫 혹은 A조와 기능은 같으나 훨씬 밝고 투명한 소리를 낸다.

B플랫조 클라리넷

가장 일반적이며 오케스트라나 취주악에서 자주 사용된다.



좌로부터 베이스 클라리넷, 바셋호른, D, B♭, A, G, E♭, 바셋 클라리넷, Contrabass, Contra-alto 클라리넷 / wikiwand.com

오케스트라 연주회에서는 클라리넷 연주자가 A조 클라리넷을 같이 준비해둔다.

알토 클라리넷

대부분 취주악에서 사용되며 베이스 클라리넷 계통에 속한다.

바셋호른

호른의 종류가 아니고 알토 클라리넷의 일종

베이스 클라리넷

B플랫보다 한 옥타브 낮은 음을 낸다.

클라리넷에 관련한 뒷이야기

클라리넷과 오보에의 차이점

클라리넷과 오보에는 검은색 나무 재질의 악기라 멀리서 얼핏 보면 구분이 잘 안될 정도로 비슷하게 생겼다. 하지만 뚜렷한 차이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로, 리드가 다른데 클라리넷은 마우스피스에 싱글리드를 장착하여 붙고 오보에는 뾰족한 더블리드를 입에 물고 분다.

둘째로, 벨 부분이 다르며 클라리넷은 나팔처럼 퍼져 있고 오보에는 둥그란 모양이다.

셋째로, 음색이 다른데 클라리넷은 맑은 소리이며 오보에는 콧소리 음색이다.



클라리넷과 오보에의 비교 / ohnpacker.co.uk

에보나이트와 ABS수지 소재

초보자를 위해 관리가 편하고 저렴한 악기를 악기 제조사에서 만드는데 에보나이트라는 경질고무와 ABS수지의 합성재료가 그것이다. 이 에보나이트 클라리넷은 흑단으로 만든 나무 재질과 구분이 쉽지 않은 검은색 제품이 있으며



에보나이트와 ABS수지로 만든 클라리넷 / coupang.com, dhgate.com

ABS수지로 녹색, 빨강, 파랑, 보라 등 색깔을 화려하게 제작하여 취주악대의 연주에 사용하여 듣는 재미에 보는 재미까지 더한 제품도 있다. 하지만 나무 재질의 사운드에 비해 빈약해서 전문 연주자는 사용하지 않는다.

엄지 고무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대는 곳이 있는데, 이 부분으로 인해 손가락이 아플 수 있다. 고무 제품을 붙이거나 가죽으로 된 제품을 장착하여 엄지손가락을 보호하는 제품도 있다.



고무 제품 / shopnmc.com

BREATHTAKING
Thumb Rest Cover for Clarinet
Breathtaking Thumb

엄지손가락 보호 커버
/ gakkido-kangakki.jp





마우스피스 쿠션 / legalhelppl.com

마우스피스 쿠션

클라리넷이나 색소폰 연주자는 마우스피스 윗부분에 윗 앞니를 살짝 얹어서 연주하게 된다. 악기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이 부분이 패여 있을 정도인데 마우스피스와 윗 앞니를 보호하기 위한 쿠션이나 패드를 붙여서 사용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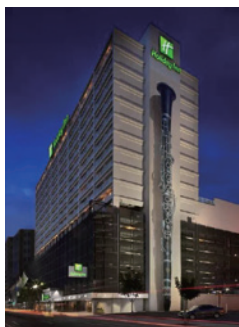
합성소재 싱글리드

클라리넷과 색소폰 마우스피스에 장착하는 합성소재 리드가 있는데 케인으로 만든 목재 소재의 리드와 비교해서 음질이 그다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이들이 많다. 저음은 풍성한데 고음으로 올라갈수록 음이 갈라지거나 열은 경향이 있다고 하며 일단 위생상 깨끗하다는 장점이 있다. 연주하고 나서 물티슈로 깨끗이 닦아주는 것만으로도 관리가 된다는 점에서 편하게 사용하는 연주자들이 늘어난다고 한다.



합성소재 리드 / silversteinworks.com

클라리넷 호텔



클라리넷을 익스테리어로 한 호텔 / ihg.com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뉴올리언스에는 건물 익스테리어로 클라리넷 3D 벽화를 한 호텔이 있다. 뉴올리언스는 재즈의 본고장이다 보니 이런 멋진 광경을 볼 수 있다.

우디 앨런 Woody Allen

영화배우, 시나리오 작가, 감독으로 유명한 우디 앨런은 80편이 넘는 영화를 제작하였으며 자신이 결성한 밴드인 뉴올리언스 재즈밴드에서 클라리넷을 연주할 정도로 지독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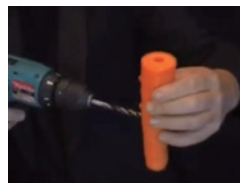
우디앨런 / thenation.com

재즈광이다. 그래서인지 그의 영화에서는 재즈 음악들이 배경으로 흐르는 경향이 많다. 미국 영화계의 거물이지

만 사생활은 형편없었던 그는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부관계였던 동거녀 미아패로와의 결혼생활(?)에 추가로 2명의 아이를 입양하고 아이까지 낳았다. 훗날 1997년에는 미아패로가 입양한 딸 순이(한국계 고아)와 35살의 나이 차로 결혼하여 수많은 화제를 뿌리기도 했었다.

린지 폴락 Linsey Pollak

당근, 보면대, 고무장갑 등 기존의 악기와는 동떨어진 소재를 이용하여 다양한 악기를 만들어 연주하는 호주의 린지 폴락이란 작곡가 겸 연주가가 있다. 그는 당근을 직접 자르고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마우스피스와 갈때기를 붙여서 당근 클라리넷을 연주하는데 음색이 우리나라의 피리 같다는 느낌이 든다.



당근에 드릴로 구멍 뚫는 모습과 당근 클라리넷 연주 / 유튜브



이조악기

이조악기란 정조악기에 대비되는 말이다. 정조악기는 악보에 C(도)음을 보고 연주하면 C음이 난다. 반면에 이조악기는 악보에 C음을 연주하면 다른 음이 난다. 예를 들면 Bb조 클라리넷은 악보의 C음을 보고 연주하면 한 음 낮은 Bb음이 발생한다. 오케스트라 총보(스코어)에 표기하는 방식은 Clarinet in Bb이라고 표현한다. 정조악기는 현악기, 플루트, 오보에, 트럼본 등이 있으며 대표적인 이조악기는 클라리넷, 트럼펫, 호른, 튜바 등이 있다.

‘아시아인은 관악기를 못 분다’는 편견 깬 클라리넷티스트 김한



김한 / simf.kr

김한은 초등학교 때 리코더를 취미로 불다가 클라리넷까지 폭을 넓혔는데 그 실력이 일취월장하면서 열한 살 때인 2007년 자기 이름을 내건 금호영재콘서트를 통해 데뷔했다. 이후 각종 콩쿠르를 휩쓸며 김한은 클래식 본고

장인 유럽에서 ‘아시아인은 관악기를 못 분다’는 편견을 깨나가는 주인공이 됐다.

김한은 느긋한 성품처럼 음악적 행보에서도 급하지 않다. 영국 이튼 칼리지에서 또래의 평범한 인문계 고등학생처럼 공부하고 축구를 하며 지냈다. 어릴 때부터 스승, 형, 누나 등과 항상 어울린 김한은 한때 또래나 자신보다 동생들을 만나면 어색해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숙 고등학교에서의 경험이 인간관계에 많은 배움을 주었다.

클라리넷은 온화하고 따뜻하며 은은한 음색이 매력적이다. 둥글둥글한 성격으로 어떤 사람, 환경에도 어울리는 김한과 닮았다. 그는 “클라리넷은 저랑 비슷한 악기에요. 목관악기 중 음 범위가 크고 셈여림도 조절할 수 있죠. 앞으로도 겸손한 자세로 열심히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라고 전했다.

악기 마이킹

스튜디오에서의 원거리 마이킹은 고감도 콘덴서를 사용하면 된다. 하지만 PA 스피커가 있는 라이브 현장에서 클라리넷은 일반적으로 악기의 상단에서 하단으로 3/4 지점에 좋은 소리가 나는데 이 지점에 다이내믹 혹은 콘텐서로 마이킹한다. 클라리넷은 이 지점과 벨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 두 곳의 사운드가 다르다. 벨에서는 스트레이트 한 사운드가 발생하는데 두 개의 구스넥 콘텐서 마이크를 사용하여 두 지점의 음원을 믹싱하여 보다 원음에 가까운 마이킹을 할 수 있는 듀얼 마이크도 있다.



원거리 마이킹 / 유튜브



클라리넷 듀얼 마이킹 / walmart.com

오보에 음원들



Out Of Africa OST (Mozart Form Clarinet Concerto)



살뤼모 소개



클라리넷 소개



Gershwin Rhapsody in Blue, Clarinet solo



Benny Goodman Orchestra Sing, Sing, Sing



The Clarinet Family



플라스틱 합성리드 소개



Woody Allen playing clarinet



Linsey Pollak Carrot clarinet



김한과 그의 연주



Basic Recording Techniques, Woodwinds(클라리넷)



클라리넷(오보에 동일) 듀얼 마이킹

이것으로 ‘오케스트라 악기와 함께’ 목관악기군에서 세 번째 주자 클라리넷을 마치게 되었다. 다음에는 오케스트라의 광대 바순이 연재된다. 🎷